

News

7월부터는 1억만 빌려도 DSR 규제...예정대로 강행 가닥

이데일리

정부, 오는 7월 강화하기로 예정한 DSR규제를 강행하기로 가닥... 대출규제 완화 추진하지만 금리 상승기 가계대출 뇌관 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을 총 대출액 1억원 초과 차주로 확대할 방침... LTV 상한선을 기존 60~70%에서 80%로 높여 잡는 방안 추진해도 대부분 실제 대출한도에 큰 변화 없을 것

신한은행 영업점서 2억 횡령 사고.."사실 관계 확인 중"

중앙일보

신한은행, 부산의 한 영업점 직원이 시재금을 횡령한 정황 파악해 자체 감사에 나서... 총 2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횡령액이 3억원 미만이면 금감원에 보고하지 않아도 돼... 내부 감사로 점검 완료하고 향후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 표명

업비트가 맡긴 투자자 자금...케이뱅크, 대출 재원으로 썼다

한국경제

케이뱅크, 암호화폐거래소 업비트 투자자들이 맡겨놓은 투자금을 영업 재원으로 사용... 작년말 기준 5조 5,000억원에 달하는 투자자들의 현금을 활용
업비트 예치금의 10% 가량이 대출로 나간 것으로 추정... 농협과 신한은행은 별도 계정 만들어 보관... 자금 인출 수요 몰릴 경우 대비해 투자자보호대책 필요하다는 지적 제기

尹정부서 가능할까...은행권, 로보어드바이저 시장 진출 잔걸음

e대한경제

은행권,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원회에 로보어드바이저 활용한 투자일임업 규제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와...시장친화적 정부 특성 고려할 때 금융 규제 완화에 긍정적인 분위기 고려
일임업 허용되지 않는 은행들은 자문보수 기반 영업에 그칠 수 밖에 없어... 일임업 허용되면 운용수수료 이익까지 챙길 수 있어... WM 수수료 이익 비중 늘릴 필요성 제기 중

마이데이터로 풀케어서비스 시동... 디지털플랫폼 힘주는 보험사들

파이낸셜뉴스

보험사들, 올들어 디지털플랫폼 구축 및 강화 중... 교보생명, 보험사 최초로 AWS와 전략적 제휴 나서며 디지털 전환 강화
KB손보, 업계 최초 마이데이터 출시... NH농협생명, 오는 7월 출시 목표로 헬스케어 플랫폼 개발 진행... 새 정부에서 보험업계 디지털과 결합된 여러 서비스 나올 것으로 전망

보험췌 "IFRS17 도입 후 생보사 성장 지표는 위험보험료"

데일리안

보험연구원, 'IFRS17도입과 생명보험 성장성 지표' 보고서를 통해 IFRS17 도입으로 보험영업수익 인식 방법이 달라져 성장성 지표 달라져야 한다고 분석
현재 지표로 활용되는 수입보험료는 저축보험료가 포함되어있어 위험 담보를 통해 발생한 보험사의 영업수익 별도로 검토하기 어려워... 위험보험료가 성장성 평가에 용이

기준금리 당분간 계속 오른다... 증권사 빚투 금리 10% 돌파 '목전'

아주경제

자기자본 기준 10대 증권사의 신용거래용자 이자율은 기간에 따라 4.5~9.5%로 집계... 하나금융투자과 키움증권이 공동 1위 차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 빨라질 수 있는 가능성 고려하면 신용거래용자 이자율 10%도 돌파 가능... 5월 금통위 이후 인상 움직임 있을 수도...

한화證, 두나무 지분 가치 250억 늘어...영업익은 26% 감소

조선비즈

한화투자증권, 위탁매매 수수료 수익 등이 줄며 영업이익 26% 넘게 감소... 다만 보유 중인 두나무 지분가치는 올해 들어 253억원 증가
수수료 수익은 전년동기대비 12.5% 감소한 762억원에 그쳐... 시장 침체로 거래 급감... 파생상품 평가 및 거래이익은 2,214억원... 키움증권 상환전환우선주 가치는 46억원 감소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